

로테르담 原油價格 무엇이 결정하나

지금부터 4년전 다시 말해 현재의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되기전 원유의 현물가격은 공시판매가격보다 웃도는 상태를 지속했었다. 원유가격 형성의 기본이 되는 현물시장의 가격수준이 공시가격의 방향을 예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키 위한 일환으로 산유국과 장기계약을 선호하던 당시, 석유소비국들은 로테르담 석유시장을 원망하는 태도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악덕거래업자들의 조작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계속 상승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산유국정부들은 표면적으로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공시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수준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이하에서 현물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編輯者註>

I. 現物市場의 특징

소비국들의 원유 비축활동, 개발탐사의 박차등으로 세계의 원유생산량은 대폭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오일쇼크에 커다란 교훈을 받은 석유소비국들이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등으로 국제원유시장은 초과공급상태로 돌변하여 장기공급계약 형태의 석유거래의 인기는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로테르담이 산유국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인즉 국제석유회사들이 로테르담에 개입하여 석유가격을 소비국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산유국, 소비국 어느 쪽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르담은 시장 변화를 조작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조작할 능력은 없다고 알고 있다.

시장의 기본형태와 기능은 아주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가격과 거래물량이 광범위한 기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석유회사들이 참여하여 시장은 살아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석유시장의 생리이다.

1. 정유시설의 현대화와 제품구입

유럽에서는 현재 많은 정유업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원유정제를 줄이는 방식을 과거 어느때보다도 선호하고 있다.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유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던 과거의 형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석유회사들의 지역 본부장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계열회사들은 본사로부터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원유의 추가 소요량을 본사에 보고하도록 지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석유회사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석유 회사들의 위치는 과거보다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거의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진출하고 있는 Aramco 파트너 회사들은 사우디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위해 사우디 원유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할 형편이다.

다른 석유회사들은 원유정제를 기피하고 그 대신 다른 회사들이 원유정제를 더 하도록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더우기 정유시설의 현대화(Upgrading)가 이루어지자 이와 같은 석유업체의 움직임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석유회사들이 시설의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될 형편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질 석유제품가격은 침체될 사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제품을 사느냐 원유를 정제하느냐(make or buy)의 결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문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적인 요인들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보다 장기적인 요인들은 복잡한 제품거래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다시 말해 원유시장에서의 문제(mid stream) 중심에서 하류부문(down stream)으로 관심의 변화, 생산지 정유공장으로부터 제품의 구매 가능성, 감소되는 수요가 정유공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원유통제력을 상실한 정유업자들은 공급의 이익기회의 촛점을 제품시장으로 부득이 바꾸어야만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2. 短期供給 形態의 선호

석유시장은 단기 공급형태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공시가격은 시장과 동떨어져 형성되었으므로 수요감소 장기계약의 선택에 의한 손실등을 실감한 나머지 정제업자들은 원유도입을 현물시장에서 현물가격으로, 심지어 선물시장에서의 구매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원유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때때로 초과재고량까지 보유하게 될 정도로 안정공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정유업체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은 아니다. 똑같은 현상이 제품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구

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서 나타난 것이다.

제품은 유럽의 정유업자들과 공통원가 베이스를 갖지 않는 두곳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바로 共産圈과 원유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소련으로부터 제품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한 대안은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원유수출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이다. 수입의 형태는 알제리아, 쿠웨이트 같은 생산지 정제업자로부터, 또 리비아, 이란, 이탈리아와의 위탁정제 계약등을 통해 제조한 제품의 수입등을 일컫는다. 소련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의 경우, 제품판매는 외화(hard currency)를 가득키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들이 원유판매 장애에 대한 대안으로, 또 원유의 할인판매와 OPEC 할당량등의 규제를 암암리에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3. 先物去來의 등장

현재 석유 선물시장은 뉴욕과 런던에서 성행하고 있고 앞으로 확산될 것 같다. 그리하여 뉴욕시장에서는 10,000건 이상의 輕油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런던의 IPE 시장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뉴욕시장에서는 WTI 원유 거래가 개시되어 하루 1,000배럴 정도의 계약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北海원유 Brent 원유도 런던 IPE 시장에서 성황리에 거래되고 있어 선물시장에 대한 신인도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원유 및 석유제품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선물시장을 통한 석유거래는 현물시장의 거래와 더불어 석유업체에 주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석유제품의 대등한 거래형식(Arm's-length Trading)에 대한 중요도가, 요란스런 단기거래가 성행하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적시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되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시장에도 수많은 보도기관들이 시장정보 조사에 참여하여 적시의 정보를 거래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거래의 90%는 정보이며, 나머지 10%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시장이 활기를 찾아가고 정착화되고 있다.

산업의 어느 부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는, 원유공급 계약에 수입국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던 몇년전보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유는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원유가격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그냥 방관할 경우 시장에서 정제업자들이 도입하는 원유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제업자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수익성 없는 시장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국정부는 이와같은 시장의 갭을 산유국과의 직거래 또는 장기계약으로부터 입게되는 손실을 자국정제업자들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줄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가격통제권의 경직된 제도에 상황을 맞춘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의식한 나머지 현물시장에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Ⅱ. 석유매장량 소유권의 상실과 일관조업 형태의 붕괴

산유국들의 잇달은 매장량의 국유화 조치 등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르는 일관조업 형태가 붕괴됨에 따라 석유회사들은 하류부문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으며, 산유국이 제품수출에 뛰어들음으로 소비국 정제업자들은 곤경에 빠졌다. 정유공장들은 시장을 확보하고 상류부문 즉 유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선취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넓은 시계를 갖고 있는 석유산업은 안정적인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대책을 세워 왔으며, 또 소비국 정부는 국내정유산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제품수입등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횡포를 견제하기도 한다.

1973년 10월 전쟁 후 석유 매장량의 국유화등으로 일관조업 형태의 석유산업의 구조는 계속 해체되어 갔다. 실로 현대석유산업의 역사는 국유화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석유산업

에 있어서의 세력이 이란혁명으로 산유국의 손에 다시 돌아온 후 원유생산과 정제과정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석유제품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제조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실례이다.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없다. 국제석유시장의 환경이 격동하고 있고, 장기공급계약이 설득력을 잃게되자 「석유제품의 제조나 구매나」가 이해득실의 관점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선의 전략은 결코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Ⅲ. 석유산업의 무역지향

석유산업의 관심이 하류부문으로 가는 과정이 완전히 파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진행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선물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며, 어쩌면 가격변동에 대응력의 필연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조업 형태는 붕괴되어 석유시장은 모를지기 자율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석유산업의 분리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유국들의 하류부문의 진출이다.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가 Gulf사의 정유공장과 구라파의 주유소들을 대거 매입한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가 마야케팅회사(Norbec) 신설, 또 해외각처(日本등)에 사무소 설치등은 산유국에 의한 석유산업의 통합화 현상이다. 산유국들은 그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그들의 주된 부의 원천인 석유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석유산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원유와 제품을 끼워 팔고, 경질유와 중질유를 끼워 파는 소위 「패키지 세일」이 성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로테르담의 석유시장 즉 현물시장가격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정치적인 이변이 없는 한, 가격은

가격기능 즉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다. 반드시 정상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수준에 매우 근접하여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원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에 진

출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올 것으로 보이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물거래에도 참여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 (주간 석유에너지정보)

□ 產油國動向 □

멕시코의 重質原油價 引上

멕시코 國營石油會社 Pemex는 지난 4월 25일 自國產 重質原油인 Maya의 공식가격을 5월 1일부로 현행 U\$25/bbl에서 U\$25.50/bbl로 배럴당 50센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Pemex에 따르면 이 같은 Maya 원유가격 인상은 美國을 비롯한 主要先進國의 경기회복, 예상밖의 추운 겨울날씨로 인한 연료유 소비증가, 그리고 石油備蓄量의 정상수준 회복 등에 의해 Maya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것을 반영한 때문이다.

멕시코는 이로 인해 한달에 약 1,300만달러의 추가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현재 멕시코의 外債는 850억달러 이상으로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질원유인 Isthmus의 공식가격은 U\$29/bbl로 변함이 없으며, 수출량도 현재의 150만b/d 수준을 고수할 것이라고 Pemex는 밝혔다.

業界소식통들은 멕시코의 Mayaga격 인상조치를 현 世界石油市況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면서 오히려 좀더 빨리 단행되었어도 놀라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에 소재한 貿易仲介會社인 DJL사에 따르면 Maya원유는 美國의 멕시코灣 精유공장으로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원유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增加一路에 있다. 게다가 API°가 22°로 Maya原油와 같은 이집트의 Ras Gharib 原油는 금년들어 두차례나 인상, 현재 U\$25.60/bbl에 달한 것도 멕시코의 유가인상조치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일부 業界소식통들은 멕시코의 重質原油價 인상조치에 따라 베네수엘라도 그들의 重質原油가

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러나 ONG/wire紙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Arturo Hernandez Grisanti 石油相은 베네수엘라產 重質原油價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自國產 重質原油는 殘渣燃料油市場에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최근 殘渣燃料油價格의 인상추세로 인해 이 市場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는 83년초부터 멕시코와 石油政策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었다.

현 世界石油市況에서 이같이 重質原油가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은 全世界 특히 美國의 精유공장들이 보다 重質原油를 처리할 수 있도록 精製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重質原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英國 石炭礦夫들의 파업으로 강세를 보인 燃料油의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JL사는 Maya原油價 인상에 따라 일부 凱리포니아產 原油의 공식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우디產 重質原油價에 대한 인상압력도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OPEC의 리더로서 君臨하고 있는 사우디는 OPEC총회를 통하지 않고서 그들의 유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Arab. Heavy의 現物價格은 작년이래 계속 공식가격 U\$26/bbl을 상회하여 왔으며, 현재 U\$26.90/bbl 수준으로 공식가격보다 배럴당 90센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